

10 **광주일보**
제17638호 2006년 12월 27일 수요일

주가	환율	금리
-3.57 1,433.92 (코스피지수)	+1.50 929.90원 (원/달러)	+0.08 4.93%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90.12	(-11.48)
다우(22일)	12,343.22	(-78.03)
나스닥(22일)	2,401.18	(-14.67)
닛케이	17,169.19	(+76.30)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8.91엔	(+0.20)
유로 달러 환율	1.3123달러	(+0.46)
3년만기 회사채	5.31%	(+0.08)
클레리	4.53%	(보합)

2006 10대 그룹 계열사 상승률 상위 15개사

단위: 원, %

순위	종목	그룹명	2005년말 주가	12월22일현재 주가	12월22일현재 주가증폭률
1	SK네트웍스	SK	15,500	36,300	134.19
2	LG생활건강	LG	55,000	124,000	125.45
3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61,300	123,500	101.47
4	SKC	SK	11,950	23,450	96.23
5	삼성테크윈	삼성	18,050	35,250	95.29
6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76,900	128,500	67.10
7	현대제철	현대차	20,950	34,750	65.87
8	두산	두산	34,000	54,200	59.41
9	GS건설	GS	53,000	82,400	55.47
10	한국은행	한진	23,400	35,500	51.71
11	LG텔레콤	LG	6,640	10,000	50.60
12	삼성엔지니어링	삼성	28,500	42,750	50.00
13	LG데이콤	LG	13,800	19,650	42.39
14	호남석유	롯데	50,000	70,200	40.40
15	삼성물산	삼성	21,600	30,200	39.81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현대중공업그룹 몸값 2배 불었다

주식상승률 84.23%~10대그룹중 최고

현대중공업그룹이 올해 증시부진에도 불구하고 '몸값'이 2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집계한 '10대그룹 주가동향'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휘철의 호황기 진입 기대감에 힘입어 연초 이후 지난 22일까지 무려 84.28% 급등, 최고의 주가 상승률을 자랑했다.

이러 SK 29.90%, 한진 15.29%, 삼성 12.01%, GS 10.94%, 두산 10.09%, LG 3.82%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롯데(-0.59%), 한화(-11.10%), 현대차(-18.82%) 등은 계열사들의 실적부진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세계최대조선사인 현대중공업(67.10%)과 수리조선소에서 중형중조선사로 변모한 현대미포조선(101.47%)이 실적전환에 성공하며 그룹 주가를 견인하는 '쌍두마차'로 자리매김했다.

SK그룹의 경우 SK네트웍스(134.19%)와 SKC(96.23%) 등 대다수 주력계열사들이 외국인과의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높은 수익률을 올렸으나 대한 가스(-5.76%), SK증권(-13.83%), 부산가스(-15.38%), 서울음반(-28.83%)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테크윈(95.29%), 삼성엔지니어링(50.00%), 삼성물산(39.81%) 등이 그룹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금호, 대우건설 대규모 인사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부사장 2명, 전무 1명, 상무(A) 6명, 상무(B) 20명 등 총 54명의 대우건설 임원인사를 2007년 1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주택사업본부장을 맡던 윤준호 전무와 국내영업본부장을 맡던 서중욱 전무가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에서 대우건설 인수 실무를 맡았던 김안식 부사장이 대우건설로 자리를 옮겨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게 됐다.

◇승진(54명) ▲부사장 윤준호 서중욱 ▲전무 박의승 ▲상무(A) 정태영 이철재 이흥재 김광희 김주동 김만철 ▲상무(B) 이상춘 원종호 김순호 남근우 안한규 서현우 유희동 안중국 김인석 강우신 김동현 옥동민 신상덕 현동호 조건연 김병각 김양기 이준하 이경섭 유희규 ▲상무보 차정운 정기영 임순주 유영현 이해구 박윤표 김충식 방산영 함동수 김남철 최종원 김익환 백종길 강승구 윤기종 장요성 채홍성 이원준 이찬빈 신희식 채동훈 김준규 이승규 정한중 소경용

◇전보 ▲부사장 김안식

1월 증시전망



내년 증시가 올해의 상대적 부진을 털고 높게 비상할 수 있을까. 그 궁극에 대한 대답의 첫 실마리가 나타날 1월 증시에 대해 투자자들이 거는 기대치가 높게 형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1월 증시가 긍정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유지해 전고점(1,464선) 돌파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몇 가지 부담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증권은 1월 코스피지수가 60일선 이하로 1,390을 저점으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증권사가 제시한 지수 밴드는 1,390~1,500선.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경기모멘텀 측면에서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되고, 기업실적이 우호적으로 작용하는데다 '1월 효과'까지 가세해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기업실적의 경우 환율 변동 위험 요인이 있지만, 내년 증감율이 18.3%로 예상되는 등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연기금 신규 유입·'1월효과', 지수 상승 발판 전문가들 "경기저점 등 부담 요인 충분히 극복"

메리츠증권도 우리 증시가 올해 조정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커플링)될 것으로 예상하며 1월 지수 범위 1,400~1,520선을 제시했다.

이 증권사 투자전략팀장은 "과거 경험상 지수가 연말보다 연초에 더 강했고, 연초래리가 1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유동성 흐름과 기업 실적 모멘텀, '1월 효과' 등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충분히 부담 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시 분석가는 "기술적 부담과 경기 저점 확인 부담, 매수차익잔고 부담 등이 있지만 미국 경기 조정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글로벌 유동성이나 실적 모멘텀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지수 1,500선 부근이 1차적인 반전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철우기자 bungu@kwangju.co.kr

광주일보사-여성경제인협 공동 '여성경제인 포럼'... 김두연 비즈니스코칭연구소장 특강



26일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여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한 여성 경제인들이 김두연 소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의사소통 원활해야 조직 발전"

조직원들의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실행하는 것이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이론이 제기됐다.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가 26일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 21회 여성경제인포럼'에 강사로 참여한 김두연 비즈니스코칭연구소장은 이날이 밝혔다.

김 소장은 '여성CEO를 위한 코칭스킬 개발과정'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인간의 행동유형을 판단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와 행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사고의 표현 정도와 감정의 개방 정도라는 영향요소를 주목,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의 행동유형은 ▲관계형=팀 관계형-팀플레이가 좋다 ▲사색형=기획능력이 탁월 ▲지시형-관리·감독 강점 ▲사교형-설득력 뛰어남

■CEO가 알아야 할 행동 유형

관계형-팀플레이 좋다

사색형-기획능력 탁월

지시형-관리·감독 강점

사교형-설득력 뛰어남

형=관리·감독과 리더십이 강점이다 ▲사교형=타인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특성을 지닌다는 게 김 소장의 논리다.

김 소장은 "과업을 중시한다면 사색형과 지시형을, 인간관계를 중시한다면 관계형과 사교형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조직원들마다 타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유연함을 지녀야 그 조직은 살아 움직이

며 나름대로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직원의 경우 ▲상대의 욕구에 맞추고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보고 행동하며 ▲인간성의 힘(Personal Power)을 이용해야 하며 ▲때로는 예측과 다른 행동을 해야 조직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CEO가 아무리 조직원들의 행동유형을 잘 인식하고 있다라도 CEO 스스로 절제된 코칭 리더십이 없다면 조직발전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CEO가 자신의 참모습을 알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야 유능한 리더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양인회 현 지회장, 김향옥 선임 지회장, 장순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외에 광주·전남지회 회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쌀·옥수수 등 농산물 10종 중금속 허용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쌀과 옥수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 10종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을 최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의 생산과 수입,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은 납(mg/kg)의 경우 쌀(현미 제외)·옥수수·대두·팥 0.2 이하, 고구마·감자·과·무 0.1 이하, 배추·시금치 0.3 이하 등이다.

카드뮴(mg/kg)은 옥수수·대두·팥·고구마·감자·무 0.1 이하, 배추·시금치 0.2 이하, 과 0.05 이하 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농림부,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폐곡속 광산 인근과 평야지역, 그리고 유통 중인 농산물을 수거해 중금속오염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를 근거로 중금속기준설정위원회를 구성, 이번 기준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jitee@

지방건설사 공동도급 참여 확대

기준금액 50억→75억미만으로 상향

국가공사에 대한 지방 건설사와의 무 공동도급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75억원미만으로 상향 조정돼 국가공사에 대한 지방건설사들의 참여폭이 확대된다.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도 공사 종류에 따라 각각 상향 조정되며 공공계약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엔 50억원미만이었다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액이 국제입찰대상 고시금액 미만의 공사로 상향 조정된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고시금액은 현재 약 84억원이나, 최근 환

율 변동을 감안할 때 내년과 2008년에 적용될 금액은 약 7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의 국가공사에는 지방 건설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년부터는 75억원미만의 국가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는 해당 공사에 지방 건설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과 지방 중소기업의 생활 등을 감안해 소액수의계약 대상도 일반건설공사는 종전 1억원이내에서 2억원이내로 조정되며 전문건설공사는 7천만원이내에서 1억원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또 전기공사는 5천만원이내에서 8천만원이내로, 물품·용역계약은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 쉽지 않을 듯

당·정 의견차이 여전 제도 개선 속도 반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판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 시범 도입이 전격 결정됨에 따라 민간아파트의 분양 원가도 공개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열린우리당이 적극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과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의 반대, 주택건설업체의 반발 등 '난관'이 많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와 정부는 28일께 다시 당정협의를 열고 두 차례 회의에서 결론짓지 못했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미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9월부터 도입하고 판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해 부동산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당정은 공공택지 25.7평이하 주택의 원가 공개 항목을 7개에서 60여개로 늘리자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열린우리당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게 됐는데 분양 원가 공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 합동으로 꾸려진 분양가제도에 대한 개선위원회의 반대, 주택건설업체의 반발 등 '난관'이 많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와 정부는 28일께 다시 당정협의를 열고 두 차례 회의에서 결론짓지 못했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연철뉴스

"분양가 공개 주중 매듭" 이용섭 건교부장관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26일 금주중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니다. 연말 안에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빨리 정책을 결정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연철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번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국인포데이티브	전남본부	스카이라이프 해피를 담당원 채용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8 062-360-0503
한우리얼리교육	호남지역본부 영업 담당자 채용	대졸/경력무관	2400~2600	12/29 02-6430-2701	
삼성도탈&삼경에너지	탱크로리/홀로리 운전 하실분 모집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29 062-251-5142	
☎화인코리아	분야별 정규직 사원 모집(서울/나주/여주,천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9 061-330-4520	
삼성출판사서광주교육본부	[주5일] 유아교육기관 영어교사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0 062-373-5346	
☎HRN	[광주지역]SK텔레콤 114상담원 모집(주5일)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30 062-529-2671	
GM대우자동차판매	2006 정규직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3000~3200	12/30 062-942-9239	
한글과 컴퓨터	컴퓨터 방문지도교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0 062-366-7220	
포토앙주	[포토샵작업] 정규직 여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12/30 062-222-0948	
(주)신양파크호텔	연회 및 객실예약 업무/벤치/F&B부서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0 062-228-8000	
아름다운사람들미용학원	강사 및 교육코디네이터 팀장 경력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0 062-233-6668	
태정산업☎	제품검수 및 품질관리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1년	1600~1800	12/30 062-953-2300	
삼성렌탈	[삼성RT사업부] 관리직 및 영업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522-0839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응용

중소에 생물분야 기술이전

광주과학기술원의 실용화사업 전문 연구소인 과학기술응용연구소(GTI)가 설립 2년 만에 첫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26일 광주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원내 과학기술응용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생물 분야 기술의 실용화에 성공, 광주 한중연 업체에 기술을 이전키로 했다.

양 측은 27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 예정이며 이전 업체는 수익형 가담을 지 불하고 기술을 이전해 신규사업에 진출

이선규 과학기술응용연구소장은 "GTI가 단기간에 기술이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복합적인 투자와 지원사업이 주요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기술이전 성공사례를 늘리기 위해 이미 개발된 기초연구 결과물과 지적재산권을 시장의 수요에 맞게 다듬고 응용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문을 연 과학기술응용연구소는 특허동향 정보 제공, 지역 CEO포럼 및 기술설명회 등 기술마케팅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각종 사업화지원 예정이며 이전 업체는 수익형 가담을 지 불하고 기술을 이전해 신규사업에 진출

황태호기자 hwangtae@